

## EU가 지적인 일본의 비관세장벽

- 일본은 EU와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, EU가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정체상태에 있음
- 일본과 EU는 올해 FTA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고위급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므로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EU가 일본에게 요구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내용이 많아, 우리나라가 EU와 협조하여 일본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

### □ EU의 대외 통상전략

- EU위원회는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의 국가와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통상전략을 재검토하여, 06년 10월 「글로벌 유럽: 국제경쟁에 대응」이라는 통상전략을 발표
  - 먼저,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FTA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표명, 관세 폐지뿐만 아니라 △비관세장벽, △공적조달 및 서비스, △투자, △자원 에너지에 대한 액세스, △지적재산권, △경쟁정책, △위생·식물위생(SPS), △지속가능한 개발 등 FTA 대상이 아니었던 분야도 중시하겠다는 내용
- EU는 통상전략을 발표한 이후,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
  - 글로벌 유럽」에서 FTA 우선 협상국으로 지명된 한국은 2010년 10월

정식 서명했고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(10년 10월 협상 개시), 인도 (11년 목표로 협상 중)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FTA협상을 전개

- 협상이 중단되었던 메르코수르는 10년 5월 협상을 개시. 캐나다도 FTA도 추진하고 있음
- 그러나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FTA 우선 국가대상도 아니고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음

\* 보고서에는 우선국가로서 언급되지 않았으나, 95년 이래 일본과 EU는 일본의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간 대화를 지속해 오고 있음

#### 〈일본-EU협상〉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2001.1 | 일본-EU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10년 행동계획 발표   |
| 2002.2 | 상호인증협정(MRA)를 발행  |
| 2004.6 | 일본-EU정상회의 개최<br>- 양국 전략적 파트너십 확인<br>- 규제 투명성 향상<br>- 상호 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확인 |
| 2006   | 외국투자 확대, 지적재산권 등에서 협력강화 확인   |

⇒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과 EU는 양국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, 협상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함

#### □ EU가 제기한 일본과 FTA협상 문제점

- EU는 이 보고서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‘과거 10년 동안 일본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’ 고 표기
- 일본과의 FTA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‘일본시장 투자에 관한 구조적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’ 고 지적

## \*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

「일본은 EU를 포함한 무역상대국과의 경제통합을 원하고 있음. 일본의 관세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, 제품, 서비스, 무역, 투자, 공공조달에 대한 규제 장벽은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임. 일본이 이러한 문제점을 철폐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EU와의 경제통합을 위한 중요한 조건임. 10년 4월 양국에서 설치한 EU·일본 하이레벨그룹에서 이런 문제점을 세밀하게 조사 중임」

- 2011년 2월 26일 한스 디트마어 슈바이스구트 주일EU대사도,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EU와의 FTA에 대해 “아직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” 라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
- 그리고 “이제부터 많은 작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교섭에 들어갈 수 없을 것” 이라고 언급
- 구체적으로 (1)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조달 촉진 (2)외국기업의 투자 조건 완화 (3)국제기준 인증 수용 등 일본의 「비관세장벽」 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
- 특히, EU는 對日수출에서 관세 품목이 많지 않아, 정부조달 투명성 향상, 의료기기, 자동차 안전기준 등 「비관세장벽」 분야 개선을 요구

## □ 시사점

- 유럽연합(EU)이 일본과의 FTA추진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, 일본이 EU가 지적한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함
- 금년 7월 EU와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, 일본과 EU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점점해가면서 對일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

- EU가 일본에 요구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내용이 많아, EU와 협력하여 일본에서의 세미나 개최 등 공동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음
- EU와 공동으로 일본과 협상하게 될 경우, 우리나라의 의견을 상당 부문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

〈참고자료〉

日経新聞(2011.2.26)

JETRO「EU新通商戦略における日本の位置付け」(2010.12)